



이웃이 살아있는 부처입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오늘은 무생(無生)한 삶을 이룩한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은 누리에 찾아봐도 있는 곳이 없으나 두두물물(頭頭物物) 속에 본체가 드러나 있고

우주 속에 가득하여 인연 따라 나타나니 보고 듣는 이의 근기 따라 이름을 지으면 곳곳에 보현이요 이른 곳마다 미륵입니다.

번뇌 속에 푸른 눈을 여는 이는 부처를 볼 것이요 사랑 속에 구원을 깨닫는 이는 예수를 볼 것입니다.

본래 이루어져 있지 않았으니 어린이 마음속에 천진불이 계시고 한마음 한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아님이 없으니 남마다 만나는 이웃이 살아있는 부처입니다.

非凡非聖(비범비성) 一法不修(일법불수) 一塵一色(일진일색) 總是一佛(총시일불)

범부도 성인도 아니며 한 법도 닦을 것이 없으니 한 티끌 한빛깔이 모두가 부처 아님이 없도다.

마음 나누는 자리 빛으로 가득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마음 한 번 들리면 그 자리가 곧 불국정토라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존동합령(肅動合靈) 이고득락(離苦得樂)하고 일체중생이 공성불도(共成佛道)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구하고 중생을 편안케 하기 위하여 생명의 빛이요 진리의 당체(當體)로 이 땅에 몸을 나타내셨습니다.

작금의 인간사회는 무명과 미혹이 세상을 지배하는 듯 합니다. 도덕성의 둔화로 말미암아 참된 성품은 찾아볼 수 없고 분별심이 기승하여 사람마다 사변(事辨)에는 밝으나 이변(理辨)은 무디어 진리는 외면한 채 살리만

을 쫓는 삶의 행태가 팽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삶의 가치기준을 물질에만 두는 서구문화에 천착되어 인간 본성을 위한 근본교육이 없이 물질만을 위한 지발교육에 치중하는 사회일반의 현상이 만들어 낸 결과인 것입니다.

생존의 법칙은 공존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인 자아실현에 혼침해 대아(大我)의 큰 생명가치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종락) 물질은 가진 자는 물질을 나누고, 지식을 가진 자는 지식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자리에는 투쟁과 갈등이 사라지고 화해와 평화가 싹트며 희망과 환희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정심(佛心)이 시불(使佛)이며, 이순(理順)이 시법(使法)이요 공화(共和)가 시승(是僧)입니다. 이와 같은 삼보의 정신을 계합시키면 저절로 진리다운 부처님 세상이 됩니다.

모두가 마음속에 진리의 등불을 밝혀 부처님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삼계유심만법식(三界唯心萬法識) 몽환공화하로착(夢幻空華何所著) 심법무형통시방(心法無形通十方) 일전회심시정토(一心轉回心是淨土)

삼계는 오직 마음이고 만물은 다만 의식이라네 모두가 꿈이요 환상인 것을 어찌하여 수고로이 집착하는가 마음은 본래 형상이 없어 시방을 통하고도 남음이 있으니 마음 한 번 들리면 그 자리가 곧 불국정토라네.

큰 도는 눈앞에 환히 드러나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은 세상에 쏟아지는 맑은 햇빛과 함께 부처님께서 오십니다. 은 세상에 꽃비가 내리고 향기가 피어 오릅니다. 푸르른 산 빛과 흘러가는 개울물 소리에도

부처님이 계십니다. 고름 속에 새살이 돋아 아픔과 고뇌 속에서 빛나는 부처님을 만납니다. 등불을 높이 드니 아! 내 곁에 와계신 임이시여 나무 시아분사 석가모니불

菩提煩惱不二(보리번뇌불이) 煩惱本來空寂(번뇌본래공적) 大道曠在目前(대도광막현재) 將道更欲覓道(장도경욕역도)

깨달음과 번뇌가 들어 아니이라 번뇌는 본래 텅 비고 고요하니 큰 도는 눈앞에 환히 드러나 있는데 도를 쥐고 다시 도를 찾으려 하네.

천지만물이 내 존재 규명



진각종 종인 헤일 대종사

오늘 석가모니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사바의 모든 중생들과 함께 기쁨과 환희한 마음으로 봉축하는 바입니다. 부처님은 빛이 어둠을 거두어 내듯 사바의 어두운 세계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열반하신 지 2500여 년이나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부처님을 기리는 것은 그의 삶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종락)

진언행자, 그리고 불자 여러분!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부처님의 삶과 말씀을 오늘에 되새겨 자신을 반성하고 이 중생사회를 밝혀 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탐진치에 물들어 거짓에 가득차고 미혹으로 가득한 자기를 참회로 놓아버리고 참된 자기를 바로 봅시다. 내 안의 본래 청정성을 되찾아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고 가정과 사회가 화목하고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갑시다. 모든 생명체와 산하 대지가 모두 나의 생각과 행동과 말에 영향을 받으며, 그들의 존재가 나의 존재를 규정함을 자각하여 공존공생의 삶이 이룩되도록 바로 보고 바로 행하도록 합시다.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지혜광명이 은 누리에 두루하니 은 만물이 불성을 드러냅니다. 파스한 햇살에 나무도 풀도 꽃과 냇물도 각자의 빛을 발하는 찬미의 봉축으로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합니다.

삼라만상 모두가 미묘법



관음종 종정 남천 스님

佛來佛去 又來佛(불래불거 우래불) 花笑鳥歌 是亦佛(화소조가 시역불) 日光佛照 八千土(일광불조 팔천토) 大地山河 如聚日(대지산하 여고일) 人人各持 黃燈火(인인각지 진등화) 萬象無非 微妙法(만상무비 미묘법) 聽脫依此 如修行(청탈의차 여수행) 天堂只在 余日前(천당지재 여일전)

부처님 오시고 가고 또 이 땅에 오셔서 꽃이 웃고 새들이 노래하며 이 땅에 오셨네 부처님 광명이 모든 나라에 비추니 대지 산하가 어두운 곳이 없오라 사람들은 각각 스스로 진리의 등을 밝혀서 삼라만상 모두가 미묘법 이요도. 이 말 듣고 이대만 뒤아 나잡지면 좋은 세상 눈 앞에 있으리라.

살아있는 중생 모두가 부처

총지종 종령 효강대종사



부처님은 자비심으로 모든 중생을 사랑하셔서 당신과 같은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용기를 일깨워 주십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대자대비와 지혜로 사회의 어둠을 밝히기를 기원합니다.

참생명 모시는게 참 공덕

총화종 종정 동광 스님



세존께서 이 세상에 오시니 대광명 이요도. 모든 중생이다 기뻐하도다. 산천초목도 좋다고 춤을 추네. 사부대중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었도다.

물결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참 생명이 잠서 있고 벗어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종락) 참 생명(법신체)을 인도하고 모시는 것이 참다운 효도이며 공덕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2550 Buddha's Birthday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기도하는 도량, 공부하는 도량, 이웃과 함께하는 도량

여름안거 수행 산림 각성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좌”

봉은사에서 오는 5월 21일(일)부터 11회에 걸쳐 여름안거 수행산림 “각성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좌”를 봉행합니다. 모든 경(經)과 논(論)을 회통하고 있는 불교 논서의 백미인 대승기신론 강좌를 통해 불교인의 참다운 모습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 일정안내 -

- 지도법사: 각성스님 (부산 화엄사 회주, 동국대 역경원 역경위원)
- 강의기간: 5월 21일(일) ~ 7월 30일(일) 총11회
- 시간: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 12시
- 장소: 봉은사 법왕루
- 강의교재: 대승기신론 (선운사, 강해)

봉은사 신도교육 안내 및 수강생 모집

봉은사는 초심자 입문교육부터 경전학교까지 앞서가는 신도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불자들이 하여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배우고 행하며, 보살행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교육안내 -

구분	교육과정	수업일 및 교육시간
초심자 입문교육(주간)	시찰안내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전10시
초심자 입문교육(야간)	법당예절	매월 첫째주 금요일 저녁 7시
기초학당(주간)	신도기본교육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기초학당(야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불교대학(주간)	신도전문교육	주2회 강의(수/목) 오전 10시
불교대학(야간)		주2회 강의(수/목) 저녁 7시30분
경전학교(주간)	주지사님 경전강의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연화대학	노인대학	주2회 강의(수/금) 오후 2시

■문의: 봉은사 포교교육팀 (02-3218-4822/4824)

봉은사 참살림 행복 프로그램 “아버지 학교”

봉은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수행을 통해 마음의 행복을 찾기 위하여 21쌍의 부부와 함께 참살림 행복 프로그램 - ‘부부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가장으로서의 올바른 역할과 가족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방법을 배우는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무무 동참하시어 참다운 행복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6월초 (추후공지)부터 2개월간
- 문의: 봉은사 포교교육팀 (02-3218-4822)

회 주 성암 종범 주지 설담 원혜
신도회장 대원 김경남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135-09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 02)3218-4801-5 / FAX 02)544-2141 홈페이지 www.bongeunsa.org



중생심 벗고 불성 찾자

원용종 종정
일공 스님



삼계의 스승이시며 사생의 아버지이며 우주的主인 이신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무명 속에 중생들의 무리를 이끄시고자 이 사바세계에 출현 하셨습니다. 이날을 맞이하여 모든 불자들은 나를 중심으로 하여 이기적인 무명의 욕망에 사로 잡혀 참 나를 깨닫지 못하고 탐진치 삼독심에서 헤매는 중생심에서 벗어나 본래 갖추고 있는 청정한 참나 불성의 자비심을 밝혀서 삼독을 없애고 가정이 화목하고 더 나아가 국민은 화합하여 나라안정에 힘쓰며 밝은 사회를 이루어 나라가 번영하고 평화통일을 이루도록 합시다.

마음 크게 열면 불국토도

조동종 종정
지명 스님



<반야경>에 이르기를 일체의 모든 존재의 법은 공이요, 허깨비요, 물거품이요, 그림자, 이슬, 번개불과 같으니, 이와 같이 관찰지니라하였습니. 본래마음 자리는 최고 없고 복도 없는 것이다 하였는데, 그러나 어리석음 범부중생들의 욕심은 금, 은, 보화가 하늘에서 소나비 오듯 쏟아져도, 그것에 만족 할을 모르는 것이 중생의 마음이다 하였습니. (중략) 탐욕과 일체의 사랑분별심을 멈추고 탈체현성(脫體現成)하여 자성으로 돌아가, 본존자각(本證自覺)하여 청정심을 찾는다면 그 자리가 행복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

미혹 중생에 참 삶의 길을

법륜종 종정
정각 스님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
“삼계개고 아량안지(三界皆苦 我當安之)”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온 누리를 장엄하고 하늘 위어나 하늘 아래에서 내가 가장 높다.
삼계는 괴로운 것이니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해주리라하는 진리의 합성이 사바세계 방방곡곡에 가득히 울려 퍼지는 날입니. 4월 8일 부처님 오심은 미혹한 중생들에게 참 삶의 길을 인도하고자 탄생하신 것입니다. (중략)
우리 다 같이 자유와 평등, 행복과 영광이 가득한 저 반야바라밀의 세계로 달려갑시다.

모든 것 마음으로 시작되네

일분선교종 종정
봉해 스님



유관심일법(唯觀心一法)
총섭제행(總攝諸行)
일체제법(一切諸法)
유심소생(唯心所生)
약능료심(若能了心)
만행구비(萬行俱備)

오직 마음뒤는 명상속에 한가지 방법만이 모든 수행의 방법을 총괄함임이 이세상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나니, 우리먼저 깨달아 삼천대전에 불국정토가 되리라.

범부들 웃으니 세상의 주인

대승종 종정
천광 스님



오늘은 온 누리에 꽃들이 다투어 피는 부처님 오신 날 입니.
범부들이 함께 손에 손잡고 즐겨 웃으니 이세상의 주인이요, 진실한 마음으로 꽃을 피우니 온 세계가 삼라만상이라
마침내 이 땅의 모든 꽃들이 피어나니 사방세계가 평온 하리라.
사방세계에 꽃도 피고 새들이 노래하니 이 땅에 부처님이 오셨네. (후략)

처처가 화장세계이니

열반종 종정
해곡



구름이 내리는 오색꽃비 속에 청진진동하고 대지 포효하네
한송이 한송이 일곱송이 연꽃속에 이땅에 나부신 부처님 부처님 이 사바세계에 오시었네
천상천하에 유아독존 인연유회의 바다건너서 일류어 중생 구하시려고 삼독의 장막을 걷어내리려고 일체중생 실유불성(悉有佛性)인데 부처와 중생이 하나요 처처가 화장세계인데 중생이 본래 부처이니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나 연화산에 향기가 짙고나.

여래불 화신으로 보살행을

여래종 종정
인왕 스님



맑고 밝은 청정의 세상은 부처님께서 이루시고자하는 장엄도량 세상입니.
미묘법을 보여주시고자 세사에 오셨으며 영원한 생명, 구원의 성취, 대자대비를 증명하시고자 출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모습, 여래불은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이 부처님 생명, 그 인연으로 부처님과 같이 탄생합니다. 우리는 여래불의 화신으로 보살행을 실천 수행 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됩시다

해동종 종정
해봉 스님



보리수 아래 육년고행이 없었다면 어찌 금일여명(今日黎明에 건명성(見明星) 하리오.
금세기에 들어서면서 인류는 극단적인이기 주의에 더욱 더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절은 자신과 집단을 서로 다투게 하여 이 사회를 병들어 가게 함으로써 인류문명은 바야흐로 불멸의 중요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걸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돌이켜 봄으로써 서로가 서로의 부족하고 어려운 점을 추스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 봅시다.

일자소식 광명으로 가득

미륵종 종정
연화 스님



분무출멸일출동(本無出沒日出東)
거래어일생사로(去來如一生死路)
만법귀일화두선(萬法歸一話頭禪)
일자소식광명천(一字消息光明天)

본래 뜨고 지기 없는데 동쪽에서 해가 솟고 가고 옴이 하나인데 생사에 해매도다.
만법이 하나로 가는 이치를 깨달으면 일자소식이 광명으로 가득하리.

이보다 더 기쁜날 있는가

불입종 종정
경조 스님



삼라만상의 진성(眞性)이 저마다 광명을 놓아 인연의 조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명업식에 가리운 중생들만이 오늘도 악업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손수 지견(佛心)을 열어(開) 보여주시고(示) 모두 깨달아(悟) 부처님의 경지로 들어가게(入)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중략)
유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열쇠를 받아서 모두가 자성(自性)의 참모습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축복, 축복 이보다 더 기쁜 날이 없습니.
모두 함께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연꽃 구름 운각을 짓네

삼계종 종정
법수 스님



청산은 높고데 봉우리에 연꽃 구름은 운각을 짓고 원효성사는 좌선삼매에 빙그레 웃고 무설설하니
염불청산에 선여기도(善女祈禱)는 해탈관문을 수지하고 평산에 밟고 울림은 흰 구름이 너울거리며 전여불의 화장세계는 운화정토(蓮華淨土)를 이루며 (중략)
불구불정을 부처님의 정각으로 가리내니 우주법계는 적멸미풍이 회돌이 치는 이 마당에 소반위에 짐시 들은 춤을 추누나 모두다 삼독심을 던지고 정각을 이루어 분귀환처 합시다.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라

법성종 종정
덕암 스님



모든 일에 인정을 담겨두라, 그리하면 빛날 다시 볼 때 좋은 날으로 서로 보게 되리라. 인간은 언제나 남을 돕고 이웃에게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 (중략)
남을 돕고 이웃에게 따뜻하게 인정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그 인정에 감복하여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실천이며 나눔의 정신이며 부처님 마음입니.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모든 불자들이 온 국민이 부처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이웃과 이웃이 서로 나누는 마음이 퍼지고 또 퍼져서 불국토를 이루길 기원합니다.

집착 버리고 자유인 되자

대원종 종정
신흥 스님



별이 꽃에서 꿀을 모으듯 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받아들여 어리석은 마음, 탐내는 마음 이것저것 얽혀 집착하고 고통 받는 현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생사유회를 뛰어넘어 대자유인의 길을 가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제자가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 두려운 이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얽매인 이가 자유로워지는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후략)

심회향법의 진과 속을 융화

삼보조계종 종정
가산 스님



낙지족천이도솔(樂知足天是兜率)
부리욕계무염적(不離欲界無染著)
대비처세이생일(大悲處世利生業)
심회향법운진속(心回向法融眞俗)

낙지족천이 이 도솔천이니 욕계를 여의지 않았으며 대비처서 세상에 처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는 없음을 삼아 심회향법의 진과속을 융화하다.

이 강 저 강이 한바다로다

무량종 종정대행
혜안 스님



부처님오신날 삼라만상이 봉축하는 소리 들리네.
인연 따라 자연의 질서는 한치의 오차도 어긋남이 없도다.
불광이 솟구치니 무명은 사라지고 탐심에 가리워 질서를 잃은 중생 불광을 보소. (중략)
이 강 저 강이 한 바다로다.
오늘 부처님오신날에 우리 모두 내면에 본성을 찾아 이웃과 온 세계 온 인류 모든 일체중생이 한 뿌리임을 알고 탐욕도 원망도 미움도 모든 가상들을 걷어치우고 서로 사랑하고 배플면서 서로 손을 마주잡고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법어전문은 buddhanews.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

내 한마음 깨우치면

오늘의 내마음이 영원한 오늘이요

부처님 오신날일세

〓

원정대행
주지혜원

국내지점 Domestic Branch	해외지점 Overseas Bran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점지점 순복유점군 금항동 무곡4차 안 5-2 TEL: 054)877-0000 / FAX: 054)877-2960 ● 제주지점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1800 TEL: 054)727-3100 / FAX: 054)727-3362 ● 부산지점 부산광역시 영도구 용산동 522-1 TEL: 051)409-7977 / FAX: 051)405-1077 ● 광주지점 광주광역시 서구 천광동 201-5 TEL: 062)479-8401 / FAX: 062)573-2174 ● 울산지점 울산광역시 북구 천광동 597-7 TEL: 054)295-4335 / FAX: 052)695-2336 ● 대구지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TEL: 053)767-3100 / FAX: 053)766-1803 ● 춘천지점 강원도 춘천시 청평동 방동리 521-1 TEL: 033)325-9200 / FAX: 033)346-2172 ● 전주지점 전라북도 전주시 미천면 오양리 50 TEL: 054)744-1311 / FAX: 054)746-7825 ● 광주지점 광주광역시 서구 신정동 152-3 TEL: 041)952-9100 / FAX: 041)952-9105 ● 포항지점 경북 포항시 북구 우천동 13-1 TEL: 054)232-3183 / FAX: 054)241-3503 ● 원주지점 경북 원주시 상당구 우암동 219-7 TEL: 043)299-5599 / FAX: 043)295-5559 ● 원주지점 강원도 원주시 포천동 1304 TEL: 033)951-0003 / FAX: 033)952-0291 ● 통영지점 전남 통영시 도산동 113-3 TEL: 055)843-0043 / FAX: 055)843-0843 ● 목포지점 전남 목포시 광동동 52-19 TEL: 061)264-1771 / FAX: 061)264-1770 ● 문경지점 경북 문경시 흥복동 982 TEL: 054)825-8871 / FAX: 054)856-19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w York (뉴욕총서림 지점) 144 39th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 (1-718)460-2019 / FAX: (1-718)399-3974 ● Washington D.C. (워싱턴 지점) 7807 Timmer Rd. Arundel, VA 22003, USA TEL: (1-703)565-6166 / FAX: (1-703)560-4556 ● Los Angeles (LA 지점) 1906 S. Victoria Ave. L.A. CA 90018, USA TEL: (1-323)766-1516 / FAX: (1-323)766-1916 ● Chicago (시카고 지점)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 (1-847)674-0911 / FAX: (1-847)674-2230 ● CANADA (캐나다 지점) 20 Ripley Crivo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 (416)759-7953 / FAX: (1-416)781-1599 ● Buenos Aires (아르헨티나 북에노스 오스티레스 지점) Miro 1575, cp14060 Cap. Fed. Rep. Argentina TEL: (54-11)4921-9230 / FAX: (54-11)492-9296 ● Tucuman (아르헨티나 도북부 지점) Av. Acondada 625B, El Corte, Yerb. Basina, cp4107 Tucuman, Rep. Argentina TEL: (54-381)421-401 ● GERMANY (독일 지점) Breitengasse 10, D-41564 Kaarst, Germany TEL: (49-052)31199591 / FAX: (49-052)31196352 ● THAILAND (태국 지점) 861 3rd Sukhumvit Rd, Bangkok, Thailand TEL: (66-2)381-5051 ● Sao Paulo (브라질 상파울로 지점) R. Newton Prado, 540-Gem. Retiro-Sao Paulo-CEP: 01127-000-Brazil TEL: (55-11)3337-8291

본 역: 경기도 연성시 연안구 석수동 101-62 TEL: 031-470-3100 / FAX: 031-470-3116 www.hanmaum.org